해남 태양광발전소 '제동'

군의회 군유지 10만㎡ 매각 불허 … "고용창출 효과 없고 산림 파괴"

각 시·군이 유치에 나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고용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는 적고 산림훼손 등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남군의회가 처음으로 사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해남군과 MOU를 체결한 태양광 발전업체인 D산업측에 군유지인 임야를 매각하려는 사업계획을 불허했다. D산업은 황산면 관춘리 일대 10만여㎡에 3천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원들이 황산면 현지를 답사한 결과 태양광 건설 후보지의 3분의 1이 농지로 개간, 사용되고 있는 등 보존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역시 불투명해 불허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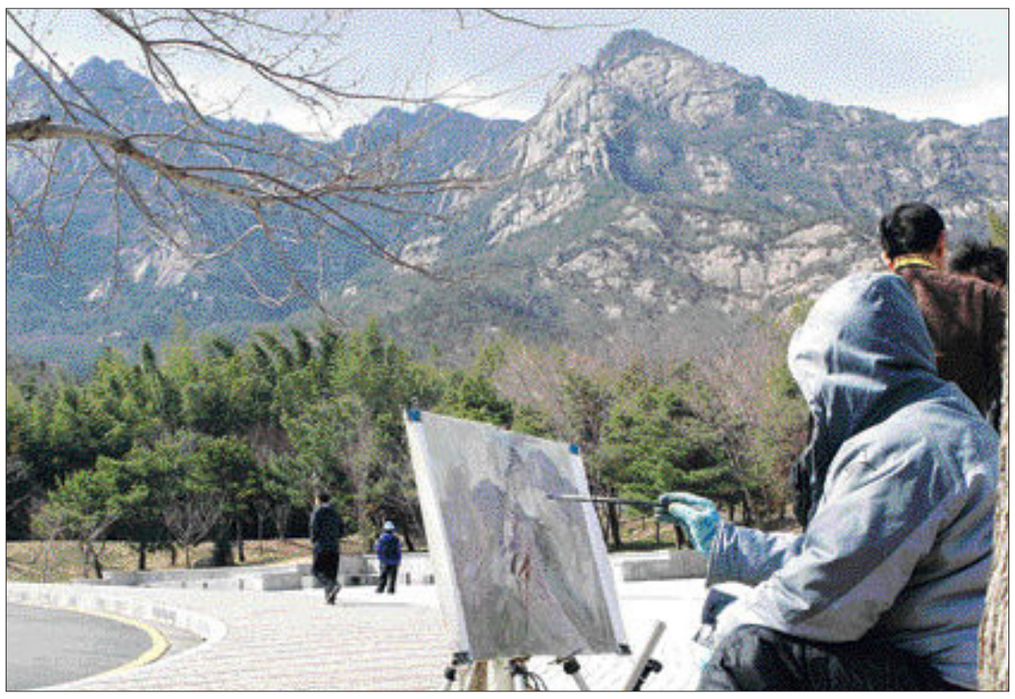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너무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남지역에서는 20개 업체가 1만5천35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15만여평의 땅과 1천3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태양광발전소 상당수가 토지비용 등을 고려해 산지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산림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해 타 지역보다 태양광 발전 입지여건이 유리, 사업자들의 투자문의가 많다"며 "그러나 당초 기대보다 고용창출 효과 등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현재 151개 업체가 17개 시·군에서 총 98Mw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아 이중 24개소에서 6천115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월출산에 전국 화가들 다모였네 지난 10일~12일까지 영암에서 '제 3회 전국화가 초청 월출산 그리기 행사'가 개최돼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화가들이 월출산을 화폭에 담았다. 이들 작가들의 작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장흥 한재공원 할미꽃 군락 장흥군 회진면 한재공원 일대 3만여평에 이달 초부터 할미꽃이 만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할미꽃 자생지인 한재공원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제 3회 할미꽃 봄나드리 행사'가 열린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신안군 신청사·복지타운 '예산변조' 감사 받는다

압해면 주민 감사 청구

신안군이 추진해 왔던 신청사 및 복지타운 건립과 예산변조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압해면 주민 509명은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민선 3기부터 군의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추진돼 오던 군청사 이전 사업이 군수가 바뀌면서 갑자기 중단돼 군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 중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와 함께 보건소, 복지타운 조성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하는 것도 그 배경에 의혹이 많다"면서 "의회 승인을 받은 2007년도 예산서 위·변조 사건 배후 조종자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5월 압해면 신장리에 착공돼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신청사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는 등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260억 원이 투입될 신청사는 압해면 1만2천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전체면적 3천442평 규모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2008년부터 이 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품질 좋은 한우 싸고 맛있게 먹으려면…

강진 '한우 먹거리촌' 찾으세요

강진군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질 좋은 암소 한우를 가장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암소 한우 먹거리촌' 조성에 나섰다.

강진군은 강진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암소 한우만을 판매, 제공하는 먹거리촌을 만들기로 했다.

군은 전라병영성, 다산초당, 청자박물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고 대형 주차장 조성이 용이한 곳에 만들 계획이다.

업소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60%를 군에서 지원한다.

이 먹거리촌은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전북 정읍시 산외면 한우촌과 유사한 개념으로 최상의 품질을 시중가보다 25~50% 가량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등심과 안심 등 상(上)등육의 경우 600g이 2만원선으로 정육 기준으로는 25%, 음식점 기준으로는 밑반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강진지역은 맥우와 우두봉, 느타리버섯 등 유명 한우 브랜드가 있는데다 사육수도 2만마리가 넘는 등 전남도내 대표적 한우 주산지다.

군 관계자는 "한우촌 사업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군 친환경농산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며 "건물 인테리어와 냉장 설비 등을 갖춰 상반기중에 개점하면 또하나의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이 지역은 친환경 농사를 짓습니다"

전남도, 인증면적 20~30% 38개 읍·면 선정

전남도가 12일 친환경농업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읍·면과 마을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친환경농업 선도 읍·면은 지난해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체 경지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장흥군 유치면, 강진군 옴천면, 영암군 금정면 등 13개 지역이다.

또 친환경농업 선도 마을은 지난해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시 소라면 봉두마을, 광양시 다압면 관동마을, 영광군 백수읍 한시랑마을 등 25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친환경농업 선도 읍·면 및 마을을 지정하게 된 것은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는 한편 농촌관광과 연계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전남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외국인 노동자 인권교육 구례경찰서

구례경찰서(서장 이희성)는 지난 9일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인 구례읍소재 삼삼건설을 방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구례경찰은 이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공사현장 화재예방 등을 교육했다./구례=김동호기자 dhkim@

원동기 출장면허 시험 인기 나주경찰서(서장 정찬명)가 최근 공산초등학교에서 원동기 운전면허 출장시험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시험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주민 127명이 응시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새얼굴

"지역민 신뢰·인권존중 최우선"

김 우 현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해 신뢰와 사랑받는 '인권존중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새로 부임한 김우현(40)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여수 출신인 김지청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32회에 합격한 뒤 법무부 심의관실, 서울지검,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1남1녀, 취미는 등산과 수영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